

오대산 선재길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방객 분석

오충현* · 박은하**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I. 서론

현대인은 태어나서 줄곧 자연과 떨어져 인공적인 도시에서 살아간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좁은 도시공간에서 살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인공화된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현대인은 항상 긴장상태(교감신경활동이 너무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미야자키 요시후미, 2007). 이에 삼림욕이나 목재 등 자연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등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내 자연환경에서 휴양과 건강을 접목한 산림치유 혹은 숲치유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75년 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대산은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최근 선재길 등 탐방인프라의 확대와 건강·치유에 대한 탐방객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체류형·휴양치유 목적의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국립공원연구원, 2013).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선재길은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약 8km의 숲길로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다니던 옛길로서 오대산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쉽고, 탐방로 대부분이 평지로 보행 난이도가 높지 않고, 치유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대상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탐방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오대산 선재길 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6일~17일 2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점은 월정사 부근 1지점과 상원사 부근 1지점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304명 중 298명의 답변을 최종 유효자료로 분석하였고,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 수정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탐방객 일반사항, 이용행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탐방객 특성

오대산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탐방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26.8%), 50대(28.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기술직(19.8%)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업주부(19.1%), 자영업(16.4%), 전문/자유직(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 학력층이 63.1%로 나타났다. 주요 탐방객 거주지는 수도권(58.6%), 영남권(16.1%), 강원권(11.0%), 충청권(9.6%), 호남/제주권 4.8% 순으로 나타났다.

2. 탐방객 이용행태

오대산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횟수는 과거 방문 경험이 있는 탐방객들이 더 많았으며, 5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탐방객도 17.4%에 달해 재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월정사지구에 위치한 월정사와 상원사로 인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함께 방문한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이 5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친구 및 연인(23.2%), 단체관광(9.1%), 직장동료(5.7%),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혼자 방문하거나 가족과 직장동료가 함께 방문한 경우가 있었다.

방문목적은 휴양활동(35.2%), 사찰 방문(26.6%), 자연경관 감상(21.9%),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10.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벼운 산책 정도의 보행난이도를 예상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대산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탐방객들은 주로 2시간 이하(60.5%)로 체류하였으며, 이동거리 역시 2km 이내(47.7%)로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구균(1996)에 의하면 월정사 입구의 탐방객 대비 비로봉 정상까지의 등정비율이 여름철은 7% 이하, 가을철은 12.6% 이하로서 탐방객 대부분 접근이 용이하고, 등반거리가 짧은 월정사와 적멸보궁을 탐방한 뒤 퇴장하였으며, 정상 등반에 참여하는 등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탐방객들이 정상 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보다

는 휴양활동과 사찰방문을 주 목적으로 월정사지구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3.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절반 이상의 탐방객(65.9%)이 선재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으며, 그 중 38.0%는 월정사에서부터 상원사까지의 흙길(옛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선재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월정사지구를 방문한 탐방객들은 대부분(79.7%)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 없었으나, 72.4%의 탐방객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바라는 것으로는 휴식 및 휴양(63.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23.7%)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흥미나 교육효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각각 2.5%, 4%에 그쳤다.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시간은 1~2시간(47.1%)이 가장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실제 체류시간인 1~2시간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짧은 시간 탐방을 계획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당한 이동거리로는 탐방객들의 실제 이동거리가 주로 2km 이내였던 반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걸어서 이동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다 먼 거리인 3~4km (52.7%)가 가장 적당함으로 분석되었다. 선재길의 보행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동거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활동의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유 프로그램의 유형별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요뜸(2011)의 숲치유 프로그램 구성활동 분류기준 중 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숲 공간 이용중심, 신체적 활동중심, 정신적 활동중심, 자연물 이용 중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탐방객들은 숲 공간 이용중심 활동(46.3%)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정신적 활동중심(20.7%)보다는 신체적 활동중심(28.2%)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탐방객들이 숲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휴식 및 휴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보전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숲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가벼운 신체적 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적당함으로 판단되었다.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상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탐방객이 프로그램 내용(55.7%)이라고 답해 프로그램 참여시간, 이동거리, 보행난이도 등의 물리적인 조건이나 시설보

다는 프로그램의 구성, 주제와 같은 내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오대산 선재길 탐방객 분석 결과, 선재길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40~50대의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수도권 거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중장년층 부부 단위로 방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선재길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부부 혹은 개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탐방객들이 주로 휴식 및 휴양(63.7%)이나 스트레스 해소(23.7%)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특정 질병의 치유보다는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은 낮게 나타났지만, 수요는 높았으며, 특히, 숲공간 이용중심 활동(46.3%)을 가장 선호하고, 정신적 활동중심(20.7%)보다는 신체적 활동중심(28.2%)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대산 선재길은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재길 구간별 자원현황을 세분하고, 이와 더불어 탐방객들의 선호도를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재길은 도보로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숲길로서, 그 길이가 길고 환류형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정사 혹은 상원사의 텀플스테이 등과 연계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치유 프로그램 개발 단계로, 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선재길의 일부 구간을 활용하여 여러 유형의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해본 이후, 점진적으로 1박 2일 프로그램 및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립공원연구원(2013) 2013년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 자료집.
2. 미야자키 요시후미(2007) 오감으로 밝히는 숲의 과학. 넥서스books, p.13.
3. 오구균, 김갑태, 임윤희(1996) 오대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행태. 환경생태학회지 9(2):182-186.
4. 이요뜸, 박수진, 유리화, 홍수장(2011) 국내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활동 내용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2):101-109.